



치고 막고 달리고

즐거운 김도영

시범경기 타율 0.464 전체 1위·배워가는 수비·거침없는 도루 ... 슈퍼루키에서 슈퍼스타로

하루하루가 즐거운 '슈퍼 루키' 김도영이 설렘으로 4월 2일을 기다리고 있다. KBO는 내달 2일 2022시즌 대장정에 나선다. 정규시즌을 앞두고 시범경기가 한창이지만 KIA 분위기는 이미 뜨겁다. '슈퍼 루키' 김도영이 팬들은 물론 선배들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활약으로 시범경기의 '슈퍼 스타'가 됐다. 대주자로 프로 첫 시범경기에 나선 김도영은 연속 도루에 이어 송구 실책으로 흥겨워하며 소문난 빠른 발을 보여줬다. 그리고 첫 타석에서 안타 행진을 시작해 15일 삼성전에서 담장을 넘겼고, 17일 KT전에서는 3안타를 쓸어 담았다. 매 경기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28타수 13안타로 타율 전체 1위(0.464)다. 김도영은 "하루하루 재미있게 하고 있다. 시합 나가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게 즐겁다"고 밝혔다.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KIA는 물론 상대 팀 선배들도 김도영을 주목하고

있다. 김도영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의식 안 된다. 그냥 의식할 정신도 없는 것 같다"고 웃었다. 화제의 인물이 됐지만 캠프 초반에는 마음고생도 했다. 마무리캠프 때는 어깨 부상으로 1군 합류가 불발됐고, 스프링캠프는 코로나19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뒤늦게 1군에 합류한 김도영은 지난 9일 한화와의 마지막 연습경기를 통해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이날 톱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좌측 펜스 때리는 2루타를 장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경기 후 "생각이 많았는데 마지막 경기니까 마음 비우고 아무 공이나 치려고 했다. 초반에 많이 아쉬웠는데 후반에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고 언급했던 김도영은 "마지막 경기에서의 모습이 확실히 좋은 계기가 됐고, 적응도 빠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전급 선수들은 확실히 야구를 잘하고 배울 점이 많다. 나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

도 타격 쪽에서 매 게임 안타 하나씩 치는 것은 만족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스윙에서 결대로 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프로 와서도 잘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홈런과 3개의 2루타 등 장타도 보여주고 있는 김도영은 "전력 분석 코치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중심에 잘 맞았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변화구에도 좋은 타이밍을 보이면서 안타를 더 하고 있다. 김도영은 "날마다 다른데 요즘에는 공이 잘 보이는 편이다"며 "원래 변화구를 잘 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하고 치니까 맞는 것 같다. 아마 때와는 구종이 확실히 다르고 수준도 높으니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빠른 발은 설명이 필요 없다. 너무 빨라서 기록된 도루 실패도 있다. 김도영은 "고등학교 때도 자주 그랬는데 베이스와 가까운 곳에서 슬라이딩하면 지나쳐버린다. 확실히 남들보다 뒤에서 슬라이딩해야 할 것 같다"며 "주루코치님께서 1루, 1구에 뛰어보라고 하

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뛰려고 마음먹으면 조금 늦어도 뛰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수비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김도영은 "포구 이런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특정상황에서 수비위치를 비롯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등을 김민우 코치님과 계속 시합 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뷰캐너(삼성)를 다시 만나는 순간, 팬들의 합성 속에 뛰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뷰캐너 불을 초구에 하나 췌는데 생각보다 공이 흩날려왔다. 한 번 더 쳐보고 싶었는데 몇 개 안 던지고 내려갔다. 시즌 때 다시 만나면 재미있게 해볼 것 같다"며 "홈런 쳤을 때 연습경기니까 별상 없애 빨리 뛰어야지 생각했는데 팬들 있을 때 치면 색다른 것 같다. 빨리 개막하면 좋겠다. 토요일에 광주에서 경기하니까 딱 좋은 것 같다. 개막전 뛰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KIA·삼성 공동 1위

갤럽 여론조사, 각각 9% 지지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23일 2022년 KBO리그 개막을 앞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 KIA와 삼성이 각각 9%로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으로 뽑혔다.

롯데 자이언츠 8%, 한화 이글스 7%,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는 5%의 지지를 얻었다.

설문에 응한 사람 중 48%는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1998년 이래 1위 구단 선호도가 10%를 밑돈 건 처음이고, 선호 구단 없는 사람 비율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관심층' 314명 중에서도 KIA와 삼성이 각각 1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2위는 13%의 한화였다.

팬이 뽑은 우승 후보는 두산과 삼성이었다. 7%씩의 팬이 두산과 삼성을 우승 후보로 전망했다.

KIA의 우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5%,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의 우승을 예상한 팬은 4%였다.

프로야구 관심층(314명)은 삼성(12%), 두산과 KT (이상 11%), KIA(10%) 순으로 우승을 예상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인기는 KBO리그 선수를 압도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야구 선수 중에서 좋아하는 선수를 3명까지 뽑아달라'는 조사 결과, 류현진이 20%의 선호도로 1위에 올랐다.

SSG 랜더스 추신수(8%)와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키움, 6%)가 2, 3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SSG로 복귀한 김광현이 4%로 4위를 했다.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없다'는 응답은 63%였다.

한국갤럽은 '야구 인기가 하락하는 현상'도 분석했다.

국내 프로야구 관심 정도는 '많이 있다' 15%, '약간 있다' 16%, '별로 없다' 23%, '전혀 없다' 44%였다. 의견 유보는 2%였다.

한국갤럽은 "2013년 이후 정규시즌 개막 직전 기준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많이 있다'+ '약간 있다' 응답)는 2014년 48%가 최고치, 2022년 올해의 31%가 최저치"라며 "20대 관심도가 2013년 44%에서 2022년 18%로 떨어진 건 전선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00년 넘는 클럽하우스 화재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US오픈·US 여자오픈 열린다

화재로 100년 넘는 클럽하우스가 모두 타버린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이 2034년과 2051년 US오픈 개최지로 선정됐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내년부터 디트로이트 근교의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2차례 US오픈을 포함해 USGA 주관 대회를 모두 8차례 개최하기로 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앞으로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USGA 주관 대회는 US 주니어 챔피언십(2024년), US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2029년), US 여자오픈(2031년, 2034년), US 오픈(2034년, 2051년), US 여자 주니어 챔피언십(2038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2047년) 등이다.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은 이미 6차례 US오픈을 치렀다.

1918년 문을 연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은 US오픈뿐 아니라 PGA 챔피언십을 3차례 유치했고, 2004년에는 라이더컵을 개최했다.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은 지난날 보수 공사 도중 불이 나서 104년 역사의 클럽하우스가 모두 타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다.

USGA는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8차례 대회를 더 치르게 되어 기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 언론은 USGA가 재난을 겪는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에 큰 선물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이란 꺾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간다"

오늘 서울월드컵경기장서 대결

"팬들에게 승리 선물하고 싶다"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에도 만족하지 않았으며 승리를 향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손흥민은 23일 이란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표인 월드컵 진출을 이뤘지만, 분위기를 보면 선수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본선 진출을 확정하지 못한 팀처럼 남은 2연전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승점 22·7승 1무)에 이어 2위(승점 20·6승 2무)를 확보, 남은 9, 10차전과 관계없이 이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로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표팀은 남은 두 경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조 1위로 예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손흥민은 "최종예선이 끝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 같아 고맙다"며 '투혼'을 예고했다.

벤투호는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9차전을 치르고, 29일엔 UAE와 마지막



이란과의 홈 예선전을 하루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왼쪽)과 손흥민이 23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이란은 한국이 최근 11년 동안 넘지 못한 팀이다.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1-0 승리 뒤 7경기에서 3무 4패에 그쳤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9승 10무 13패로 열세다. 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해 10월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맞대결에서 한국은 손흥민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란이 상당히 강한 팀이라는 건 변함없다"면서도 "지난해 원정 경기에서 원했던 건 승점 3이었지만, 1점을 가져오면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홈 경기에서는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부상으로 지난 1~2월 열린 레바논, 시리아와 최종예선 7, 8차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약 4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다시 돌아온 그는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대표팀 선수들도 스태프도 많이 보고 싶었다"던 손흥민은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지만, 놀러 온 것은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즐거움보다는 대표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골 욕심도 내려놓았다. 소집 직전 소속팀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어느 팀에서 경기하든 내 욕심보다는 팀 목표를 우선시했다. 이번에도 선수들이 그런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팀의 목표가 확실히 생긴 것 같다"면서 "주장인 나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팀이 무너진다. 골은 누가 넣어도 내가 넣는 것처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골 욕심보다는 어떻게 팀을 도울지,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